

"MI-333"

글로벌인턴십 운영성과와 교훈

김형신 교수

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
2019.5.31

■ MI-333 : Global mentoring for Internship for 3+3+3 months

3

- 4학년 1학기/2학기 3개월간 국내에서 원격으로 해외 기업 멘토의 프로젝트 수행
 - 멘토의 평가 후, 인턴으로 선발되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현지 인턴십 수행

3

- 미국에서의 첫 3개월은 사업단에서 생활비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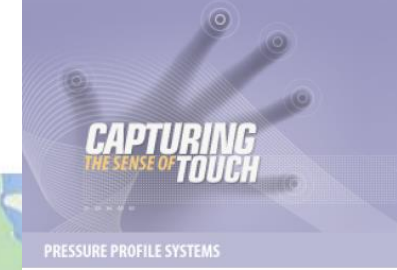
3

- 다음 3개월 이상은 해외 업체에서 경비를 부담
- 인턴십 후, 해외기업 채용으로 연계 추진

MI-333



DIAGNOMICS



학교
IL UNIVERSITY

- Blackrock Microsystems
- Diagnomics
- EpiSys Science
- Fasoo, Inc.
- Guppy Games | Media
- Huup Limited
- Kabaal
- LookAllure Inc.
- NanoCollect Biomedical
- Pressure Profile Systems
- Robolink
- Room Choice
- SimpleCitizen, Inc.

GIBLIB

BLACKROCK MICROSYSTEMS



nanocellect Biomedical, Inc.



Fasoo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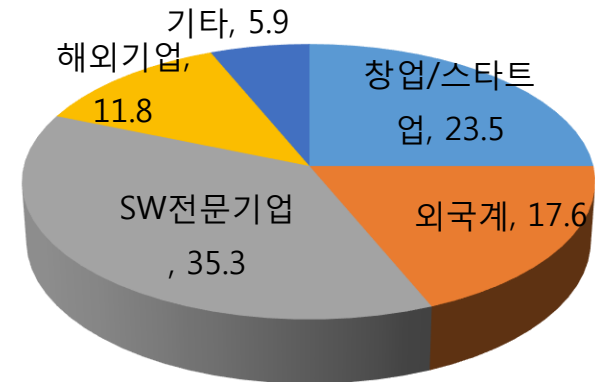
대학 하계 워크숍

항목	2016년	2017년	2018년
참여기업	13개	7개	9개
신규기업	13개	1개	2개
멘토링 참여	19명	14명	15명
현지 인턴 파견	8명	9명	10명

- 16명 졸업
- SW전문기업(네이버, 줌, LGCNS등)과 스타트업에 취업
- 해외기업(H1B신청자 1명포함) 2명

분야	명
창업/스타트업	4
외국계(국내)	3
SW전문기업	6
해외기업	2
기타(이직)	1
계	16

MI-333 졸업생 진로(%)



충남대 해외인턴십(MI-333)후 해외기업 취업자 3명



<CES2019 Robolink사 Innovation Awards>

로봇 키트에 인공지능 교육을 더한 인공지능(AI) 교육 키트 '주미(Zumi)'를 소개하였고, '최고 혁신상(Best Innovation Award-금상) 로봇 및 드론 분야'를 수상하였으며, 이는 글로벌 기업인 DJI (은상)와 Intel (은상)을 제치고 작은 스타트업이 금상을 수상

-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의 인턴십 기회 보다는 스타트업과의 프로그램 운영이 효과적이다
 - 대기업이나 직원이 50명 규모 이상인 회사의 경우는 법률 팀 등에서 인턴참여학생들에 대한 법적 이슈를 이유로 인턴십 협의가 지연됨
 - 소규모 기업은 의사결정이 빠르고, 필요 서류 요청시 처리가 매우 빠름
 - 당연한 이야기지만, 대기업들은 정형화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,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움

■ 우수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

- 3년간 프로그램에 미국 기업이 계속 참여하는 이유 ? 단순히 애국심 때문에 ? 비용 대비 효용성 때문일 것으로 추정
- 실무능력, 어학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우수한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
- 우수한 참여기업과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학생들에게 홍보해야 한다
-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참여기업 CEO초청 강연
- 프로그램의 매력을 적극 홍보 : 미국 서부 지역의 매력, 지원금의 규모, 선배들의 우수 취업사례, 학점 이수의 장점(18학점)

-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졸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학사관리를 도와야 한다
 - 미국에 파견되면 최소 6개월, 최대 2년까지 미국 체류를 해야한다
 -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에 가게 되므로,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과와 긴밀히 협력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
 - 학기제 인턴십과정으로 전공학점을 부여해주는 것이 좋다(18학점)
 - 미국 파견으로 인해 학점 이수 요건을 미리 챙기지 못하는 사례,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, 무심한 졸업연기 계획 수립 등
 - 연 2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사일정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

- 참여기업과 학생 모두에게 Free Lunch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
 - 한국학생을 인턴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업무 능력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. 기업에 따라 추가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
 - 인턴은 직장에서 단순 체험이나 견학하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 직원처럼 근무해야 한다. 출퇴근 시간 준수, 휴가, 병가 관리.
 - 불확실한 상태에서 미국에 가는 것보다는 중도 이탈, 변심하는 것이 더 낫다

- 인턴과 기업 관계자 모두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한다
 - 인턴이 장기 여행을 가는 경우,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한국에도 사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
 - 인턴 학생의 성실도, 근무능력을 모니터링 하고, 양쪽에 오해가 없는지,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
 - 인턴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는지,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는 않는지 생활관리도 신경을 써야한다
 - 1달에 1회 정도 화상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음... 반드시 얼굴을 봐야 함
 - 1년에 1회 현장 방문을 통해 인턴과 기업을 방문해서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단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

- 결국 프로그램의 성공은 “비전”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
 - 참여기업, 학생들에게 SW중심대학 사업의 취지를 공유
 - MI-333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양성의 의지, 비전을 공유
 - 한국인 기업인들의 후학 양성 프로그램 참여로 애국심 고양
 - 참여기업들의 이름이 신문에 실릴 수 있도록 제품홍보, 회사홍보, 투자유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
- 함께 밥 먹고 함께 솔직히 후배들의 미래를 고민한다